

# 지호락 知好樂

## 3회 한국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

7.19. WED 19:00-21:00

선착순 30명 | 파스쿠찌 2층(상주시 상산로 363)

정인성(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4회 신라의 황금문화

7.26. WED 19:00-21:00

선착순 30명 | 카페 로그인(상주시 아리랑고개1길 46)

함순섭(국립경주박물관장)

접수기간: 2023. 7. 10.(월) ~ 7. 17.(월)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상주시 통합예약 서비스

※사전 예약자 당일 현장에서 음료 쿠폰 제공

삼여도의 물고기  
'삼여(三餘)'와 '삼어(三鰓)'의 운이  
같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밤  
시간·겨울철·비울 때와 같은 남는  
시간을 통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知好樂

지호락

학문은 알기 위해서 시작되고(知),  
아는 것이 자주 쌓이면 좋아지게  
되고(好), 좋은 것이 많다 보면 즐  
거워진다(樂).

## 3회 한국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

7.19.(수) 19:00-21:00 |



강사: 정인성

前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 조교수

現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現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장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학사, 석사, 동경대학 문학부 고고학 박사과정을  
거쳤다. 와세다대학 대학원 객원 조교수,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  
조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중앙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한국고고학자가 다시 쓰는 조선고적조사 I·II·III』  
, 『영남의 고고학』, 『영남지역 원삼국시대 목관묘』가 있다.

광개토대왕비와 비문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연구주제이다. 1883년에 일본  
육군 참모부의 장교가 유사탁본을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조사는 1913년에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인문학콘서트에서 일본에서 입수한 조사 당시의 각종  
기록 자료를 소개하며 조사상황을 선명하게 재구성해 보일 것이다.

## 4회 신라의 황금문화

7.26.(수) 19:00-21:00 | 카페 로그인



강사: 함순섭

경북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

前 국립대구박물관장

現 국립경주박물관장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에서  
학예사로 박물관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립  
대구박물관 학예실장,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장, 국립 대구박물관장으로  
지내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황금의 나라 신라는 실재하지만 또한 만들어진 서사이기도 하다. 고대기록과  
고고자료는 이어져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긋나 있다. 고대국가  
형성단계를 생각하며 신라 황금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사를 넘어서 역사  
로서 황금문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리잡고 변화하는지 이야기를 나누  
고 싶다.